

25년 축적 광주 광융합산업, 광반도체로 재도약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미래포토닉스 상생협의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시청 제공

AI·에너지·우주·방산 이끌 미래포토닉스 협의회 출범

광반도체 육성 박차...광산업 기업 270여개·매출 3조원 성장

광주시가 지난 25년간 쌓아온 광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방위, 우주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기술인 '광반도체'를 중심으로 광융합산업 재도약에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일 한국광기술원에서 광융합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포토닉스(광융합산업) 상생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상생협의회에는 광주시를 비롯해 한국광기술원,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광주과학기술원(GIST), 고등광기술연구원, 전남대, 지역 주요 광융합기업 10개사 등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기업들은 광융합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고도화와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상생협의회는 기술 개발(R&D)부

터 인력 양성, 실증, 사업화에 이르는 산업 전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소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체계를 가동한다.

광주시는 우선 정책 가이드 라인과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광기술원(KOPTI)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호남권연구본부 등 연구기관은 광반도체 및 광센서 등의 공동 연구와 시험·인증을 담당한다. 특히 대학과 연구소는 기업이 현장에서 즉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실무 맞춤형 전문 인력을 공급하고, 기초 원천기술 연구를 통해 산업의 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광반도체, 자율주행용 라이다(LiDAR) 센서, 6세대 이동통신(6G) 광트랜시버, 우주국방용 광학 제품 등 미래 유망 산업과 '기술 융합'을 핵심 전략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 광융합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 시제품의 성능 검증과 시장 진입을 앞당기고,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나아가 세계적 반도체 연구소인 벨기에 아이멕(IMEC), 독일 예나(Jena) 광학클러스터 등 선진기관과 교류를 통해 지역 광산업 생태계를 세계적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지속할 수 있는 성장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최근 광기술은 인공지능(AI), 6세대 이동통신(6G), 에너지, 우주, 방위산업 등 미래 혁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기존 전자 중심 반도체의 한계를 넘어 대량의 정보를 초고속으로 처리하는 '광반도체'로의 기술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같은 산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인 '차세대 광반도체 제조 기반 기술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유빈 기자

기아-신한은행, 오토큐·판매대리점 전용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기아가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 및 대리점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전용 금융상품 지원에 나섰다.

기아는 신한은행과 손잡고 오토큐 가맹점 및 판매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오토큐·대리점 전용 금융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고 12일(화) 밝혔다.

기아 브랜드 체험관 Kia360(서울 압구정동 소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은 기아 국내사업본부장 정원정 부사장, 신한은행 장호식 CIB 대기업그룹장(부행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

다. 이번 업무 협약은 신규 인가와 시설 확충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오토큐 가맹점 및 판매대리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아는 신한은행과 함께 시설대금 및 운영자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토큐·판매대리점 전용 대출 상품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중 은행 대비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전용 상품을 통해 가맹점

및 판매대리점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증수리 매출 및 판매 수수료 데이터가 대출 심사에 활용된다.

가맹점과 대리점 대표의 동의를 전제로, 오토큐의 보증수리 매출 및 판매대리점의 수수료 데이터를 대출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사업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대출 조건을 제공한다. (단, 금리·한도 등 구체적인 상품 조건은 은행 심사 결

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기아와 신한은행으로부터 상품 안내를 받은 오토큐 대표 및 판매대리점주는 1대1로 사전 매칭된 인근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 대출 상담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관리, 수신 등 다양한 금융 솔루션을 받을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오토큐 가맹점과 판매대리점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

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협력사 및 대리점과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동차 유통·정비 현장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가맹점과 대리점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양사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금융 지원 체계를 확대하며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토지권원 95.2% 달성! 조합원 모집 신고필!

조합사업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조합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양동현대지역주택조합